

세계지식포럼 사무국

(우)0462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  
(필동1가, 매경미디어센터) 4층  
전화 : 02-2000-2411~5  
일반문의 : knowledge@mk.co.kr  
등록문의 : wkf\_reg@mk.co.kr

The World Knowledge Forum  
Secretariat

4FL, Maekyung Media Center Bldg.  
190, Toegye-ro,  
Jung-gu, Seoul, Korea 04627  
Tel : +82-2-2000-2411~5  
Fax : +82-2-2000-2419  
E-mail : knowledge@mk.co.kr

**매일경제** **MBN**

# TERRA INCOGNITA:

REDESIGNING THE GLOBAL ARCHITECTURE

# 2021



2021.9.14~16  
SEOUL, KOREA



# TERRA INCOGNITA:

REDESIGNING THE GLOBAL ARCHITECTURE

2021.9.14~16  
SEOUL, KOREA

WORLD  
KNOWLEDGE  
FORUM





## MESSAGE FROM THE CHAIRMAN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세계지식포럼 집행위원장

### 장 대 환



###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세계지식포럼이 올해로 제22회째를 맞았습니다.

세계지식포럼은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대 포럼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최고의 글로벌 포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지식포럼은 매년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세계 앞에 놓인 현안을 짚어 시의 적절한 화두를 던지고, 세계가 변화하는 가장 최근의 트렌드를 소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지식포럼은 포럼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세계지식포럼은 세계 석학들의 지식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식의 향연'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이제 세계지식포럼은 지식을 '발신'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 덕분입니다. 해외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세계지식포럼 콘텐츠를 접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회의·강연이 일반화한 것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제22회 세계지식포럼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폭이 큰 시점에 개최됩니다. 백신 공급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이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미 일하는 방식, 교육하는 방식, 즐기는 방식 등 모든 삶의 양식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가 쏟아부은 막대한 유동성은 글로벌 경제의 균형점을 옮겨놨습니다. 자유무역을 기초로 했던 세계 경제의 작동원리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 또한 현명하게 이 같은 파고를 넘어야 합니다.

이에 올해 세계지식포럼의 주제는 '테라 인코그니타: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Terra Incognita: Redesigning the Global Architecture)'로 정했습니다. 테라 인코그니타는 '가보지 않은 세계'를 뜻합니다. 새로운 세계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위협 또한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올해도 세계지식포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만나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지식포럼이 열리는 사흘간 참가자들은 우리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머리를 맞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최고의 지식으로 보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WORLD KNOWLEDGE FORUM 2021

세계지식포럼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뒤 창조적 지식국가 대전환을 목표로 2년여간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출범했다. 그동안 세계지식포럼은 지식 공유를 통한 지식격차 해소, 균형 잡힌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공해왔다. '지식으로 새 천년 새 틀을 짜다'는 주제로 첫 포럼이 열린 후 지금까지 총 4,788명의 글로벌 연사와 5만2,860여 명의 청중이 참여해 세계지식포럼을 명실상부한 지구촌 최대 지식축제로 만들었다.

조지 W. 부시 제43대 미국 대통령, 테리사 메이 제76대 영국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제23대 프랑스 대통령, 게르하르트 슈뢰더 제7대 독일 총리 등 국가 정상들,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국제기구 대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 존 헤네시 알파벳 회장,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 회장 등 기업인, 래리 서머스, 폴 크루그먼, 마이클 포터, 그레고리 맨큐 등 석학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계의 미래를 고민했다.

올해 22회를 맞는 세계지식포럼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합한 가운데 '테라 인코그니타: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Terra Incognita: Redesigning the Global Architecture)'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올해 세계지식포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등을 비롯해 스웨덴 최대 기업 발렌베리그룹을 이끄는 마르쿠스 발렌베리 SEB(스톡홀름엔스킬다은행) 회장, 밥 스티븐스 맥킨지앤드컴퍼니 글로벌 회장, 예스페르 브로딘 잉카그룹(옛 이케아그룹) CEO, 폴 밀그램 스탠퍼드대 교수,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숫자로 보는 세계지식포럼

# WORLD KNOWLEDGE FORUM IN NUMBERS 2000~2020

## 포럼 참가자

21년의 세계지식포럼 기간 중 국내외 정계, 학계, 기업 등 각계 각층의 참가자들이 '지식의 향연'을 즐겨 왔습니다.

 **52,860**

## 연사

조시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등 정치, 경제, 산업계의 글로벌 연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4,788**

## 국가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등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세계지식포럼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82**

## 세션

세계지식포럼에서는 해마다 경제, 산업, 정치, 문화, 예술, 미래, 기후변화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집니다.

 **1,387**

역대 세계지식포럼 주제

# WORLD KNOWLEDGE FORUM THEMES 2000~2020

## 2000

지식으로 새 천년 새 틀을 짠다

Shaping the New Millennium with Knowledge

## 2001

지식기반 경제시대 인류공영을 위한 비전의 모색

Drawing the Roadmap for Knowledge Economy and Global Prosperity

## 2002

위기를 넘어, 새로운 번영을 향해

Knowledge in a World of Risk: A Compass towards New Prosperity

## 2003

인류번영을 위한 새로운 세계질서와 경제의 창조

Creating a New World Order and Economy

## 2004

파트너십을 통한 세계경제의 재도약

Partnership for Renewed Growth

## 2005

창조와 협력: 새로운 시대를 위한 토대

Creativity and Collaboration: Foundation for the New Era

## 2006

창조경제

Creative Economy

## 2007

부의 창조와 아시아 시대

Wealth Creation & Asia

## 2008

협력의 마법 & 아시아 시대

Collabonomics & Greater Asia

## 2009

하나의 아시아, 신 경제질서 그리고 경기회복

One Asia: New Economic Order & Recovery

## 2010

원 아시아 모멘텀, G20리더십 & 창조적혁신

One Asia momentum, G20 Leadership & Creatinnovation

## 2011

신 경제 위기: 글로벌 리더십의 변혁과 아시아의 도전

The New Economic Crisis: Reforming Global Leadership & Asia's Challenge

## 2012

위대한 도약  
글로벌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

The Great Breakthrough: New Solutions for Global Crisis

## 2013

원아시아 대변혁

The One Asia Metamorphosis

## 2014

세계 경제 새로운 태동

Invigorating the Global Economy

## 2015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서

Mapping the Zeitgeist

## 2016

대혁신의 길

Aiming for Great Instauration

## 2017

변곡점을 넘어, 새로운 번영을 향해

Inflection Point: Towards New Prosperity

## 2018

집단지성: 글로벌 대혼란 극복의 열쇠

Collective Intelligence: Overcoming Global Pandemonium

## 2019

지식혁명 5.0: 인류 번영을 위한 통찰력

Knowledge Revolution 5.0: Perspicacity Towards Prosperity for All

## 2020

팬데믹: 세계 공존의 새 패러다임

Pandenomics Perspective: Shaping New Global Symbiosis



제22회

## 세계지식포럼 주제 소개

# TERRA INCOGNITA:

REDESIGNING THE GLOBAL ARCHITECTURE

테라 인코그니타: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곳을 향해 항해하고 있다.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부(富)의 공식이 바뀌고 있다.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의 급등세와 비트코인·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의 부상은 그동안 금융시장에 뿌리내렸던 투자의 문법을 흔들고 있다.

다자무역을 근간으로 발전해온 세계 경제의 기본질서 또한 팬데믹을 계기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심화되는 빈부 격차, 그리고 팬데믹으로 드러난 사회보장 체계의 민낯은 기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은 오히려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질서의 양대 축인 양국의 간극은 안보를 넘어 경제, 산업,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벌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후회복을 둘러싼 국가 간의 논의가 국제 정세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반도체로 대표되는 기술 경쟁은 세계 경제와 국제정치의 판도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팬데믹 이후 기술은 발전에 가속이 붙었고,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다.

제22회 세계지식포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를 조망하기 위해 '테라 인코그니타: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Terra Incognita: Redesigning the Global Architecture)'를 주제로 제시한다. '테라 인코그니타'는 '지도에 없는 땅'을 뜻한다. 세계가 팬데믹 이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세계가 향하는 '새로운 세계'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와 땅이 될 수도 있다. 반면 변화의 흐름을 놓치면 실패를 경험할 위험도 존재한다. 세계는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서로 연결돼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세계의 길목에서 글로벌 공동체는 공존의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변화의 흐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무엇일까?

제22회 세계지식포럼은 이 중대한 시점에서 새로운 시대정신과 균형점을 모색한다.

\*Terra Incognita는 '지도에 없는 땅'을 뜻하며 가보지 않은 세계를 의미







트랙 소개  
**TRACK  
 INTRODUCTION**

## 01. NEW BUSINESS PATH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기업 경영활동은 '디지털'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이어졌던 이 같은 흐름은 팬데믹을 계기로 한층 가속도가 붙었다. 직원의 근무방식에서부터 수익 구조, 소비 트렌드까지 기업들은 전례 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테크 기업들의 진격이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의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대로 '테크래시(Techlash)'로 일컬어지는 기술에 대한 반감 또한 부상하는 시점이다.

전통적인 산업 역시 팬데믹을 계기로 큰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조선·해운·항공처럼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산업들은 다시 재도약에 나서고 있다. 변화의 물결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경영 방식을 모색하고,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안겨줄 것인지 청사진을 제시한다.

## 02. WEALTH DISCOVERY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2021년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유례없는 상승 곡선을 그렸던 한 해였다.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진행된 막대한 규모의 재정·통화정책이 그 바탕에 있었다. 하지만 풀려있는 유동성이 과도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곡물·원자재 등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또한 현실화되는 시점이다. 이에 중앙은행이 결정하게 될 정책금리의 향방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선이 쏠려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사실상 '테이퍼링'을 시작하며 풀린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상태다. 이 같은 움직임은 2022년 글로벌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됐지만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상자산을 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투자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미래 변수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본 트랙에서는 부(富)를 향한 항해의 경로를 찾아 나선다.



### 03. GLOBAL POWER DYNAMIC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다툼은 계속해서 치열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와 중국의 대립 관계는 지속되는 모양새다. 양대 진영 간 대립은 외교·안보를 넘어 경제·무역 분야로 번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경제동맹'은 향후 글로벌 지정학적 흐름의 주요한 주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2021년 7월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약 7개월 차이로 개최된다는 점도 국제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강국과의 관계 측면에서도 중대한 시점에 놓여있다. 국제정치의 역학이 달라지는 지점에 놓인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지정학적 도전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04. RACE TO NET-ZERO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공동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후회복'을 위한 움직임은 오는 11월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7% 줄었지만, 대기 중 탄소 농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세계 각국은 탄소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등 넷제로(Net-zero)를 위한 국제적 공조에 참여하고 있다. 탄소저감 기술과 이에 대한 투자는 기후회복을 가능케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다만 기후회복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는 각 개발 단계에 있는 국가들 간의 이해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카보노믹스(Carbonomics)의 작동 원리, 그리고 글로벌 공조를 위한 방정식을 본 트랙에서 살펴본다.

### 05. BEYOND GRAVITY

'마지막 신대륙' 우주에는 무한한 기회가 있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같은 억만장자들을 비롯해 세계 각국 정부가 우주탐사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화성 탐사 이후 진행될 달 유인탐사를 위한 '아르테미스 플랜'은 우주탐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로버 퍼시비어런스의 화성탐사를 계기로 화성을 향한 인류의 꿈은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올해 10월 누리호, 2022년 달궤도선 발사를 앞두고 있다. 한국도 우주탐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준비에 나서는 상황이다. 억만장자들의 우주를 향한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화성이 인류의 새로운 거주지가 될 수 있을까. 우주의 미래와 인류의 가능성을 예측한다.

### 06. HELLO, NEW WORLD!

21세기 인류의 삶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팬데믹을 계기로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일터와 가정 등 우리 일상의 모든 분야가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다. 그동안 느린 속도로 이뤄지던 변화가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가속도가 붙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했다.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지금껏 수면 아래 있었던 자본주의의 한계점 또한 극명하게 드러났다. 확대되는 자산 격차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 또한 잠재적인 사회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제 다시 미래를 설계해야 할 시점에 놓였다. 새로운 세계로 접어든 지금,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방향을 찾아본다.





연사 소개

# SPEAKER INTRODUCTION

BUSINESS



**마크 슈나이더**  
Mark Schneider  
네슬레 CEO

2016년 9월 네슬레에 합류한 후  
2017년 1월 CEO에 임명됐다.

2001년 프레제니우스 메디컬 케어 (Fresenius Medical Care)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프레제니우스에 합류했으며, 2003~2016년 프레제니우스 그룹 CEO를 지냈다. 1989~2001년에는 독일계 다국적 기업인 하니엘 그룹(Haniel Group)의 주요 임원직을 맡았다. 슈나이더 CEO는 스위스의 장크트갈렌대학교(University of St. Gallen)에서 재무회계학 학위 및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MBA)학위를 받았다. 독일에서 출생하고 성장했으며 2003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마르쿠스 발렌베리**  
Marcus Wallenberg  
SEB 회장

2005년부터 발렌베리그룹의 모태인 스톡홀름엔스킬다은행(SEB)을 이끌고 있다.

사브(SAAB)와 재단자산관리회사인 팜(FAM·Foundation Asset Management)의 회장으로도 재직하고 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이사회와 크누트 앤드 엘리스 발렌베리 재단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집단이다. 발렌베리 가문은 160년간 5대째 가족경영을 이어오고 있지만, 소유와 경영을 철저히 분리해 회사를 운영한다. 삼성그룹의 롤모델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밥 스텐펠스**  
Bob Sternfels  
맥킨지앤드컴퍼니 글로벌 회장

맥킨지의 13번째 수장에 선출돼  
7월 1일부터 임기 3년의 글로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다이 출신으로, 1994년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에 입사했다. 맥킨지에서 근무하는 26년여간 글로벌 고객 역량 강화를 비롯해 미주지역 운영, 디지털 분석, 글로벌 사모투자 분야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맥킨지 이사회인 주주위원회(Shareholders Council) 일원이기도 하다. 대학 때 수구팀에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 수구(Water Polo)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와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예스페르 브로딘**  
Jesper Brodin  
잉카그룹(옛 이케아그룹) CEO

세계 최대 규모의 홈퍼니싱 기업인  
잉카그룹(옛 이케아그룹)의 CEO다.

1995년 이케아그룹의 파키스탄 구매 매니저로 입사한 후, 잉바르 캄프라드와 당시 CEO였던 안데르스 달비그의 선임 비서관, 키친 및 다이닝 비즈니스 부문 매니저, 인터 이케아(Inter IKEA Group) 생산·공급체인 부문 대표를 맡았다. 스웨덴 샬머스 공과대학(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산업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부인 레나(Lena)와의 사이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바비 브라운**  
Bobbi Brown  
바비 브라운 코스메틱스 창업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다.

현재 기업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칼럼니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10가지 심플한 립스틱을 기반으로 '바비 브라운 코스메틱스(Bobbi Brown Cosmetics)'를 창업해 10억달러 규모의 화장품 브랜드로 키워냈다. 2016년에는 창업자로서의 뿌리로 돌아가기 위해 바비 브라운 코스메틱스를 떠나 'Beauty Evolution LLC'를 설립했다. 현재 웰니스 제품과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플랫폼, 부티크 호텔 등 3가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연사 소개  
**SPEAKER  
 INTRODUCTION**  
 BUSINESS



**피터 디아만디스**  
 Peter H. Diamandis  
 엑스프라이즈(XPRIZE) 재단 설립자 겸 회장

미래학자이자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혁신 기업가다.

세계 최대 비영리 벤처재단인 엑스프라이즈(XPRIZE) 재단의 설립자 겸 회장이다. 포천이 선정한 세계 50대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싱굴라리티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싱굴라리티대학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과 기술에 대해 자문하고 해결책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그는 사업가로 우주, 벤처 캐피탈, 교육 등에 관련된 20개가 넘는 하이테크 기업을 설립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어번던스' '볼드' '컨버전스 2030' 등의 책을 썼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분자유전학과 항공우주공학 학위를, 하버드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워런 이스트**  
 Warren East  
 롤스로이스 CEO

2014년 1월, 롤스로이스(Rolls Royce)의 비상임 이사로 선임됐으며, 2015년 7월에 CEO로 임명됐다.

롤스로이스 합류 전 TI(Texas Instruments)에서 11년을 보냈으며, 1994년에는 ARM에 입사해 COO(Chief Operating Officer)를 거쳐 2001~2013년 CEO 역할을 수행했다. 옥스퍼드 대학 워드햄 칼리지(Wadham College)에서 공학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크랜필드 경영대학원(Cranfield University School of Management)에서 경영학 석사를, 그리고 뉴캐슬과 크랜필드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짐 굿나이트**  
 Jim Goodnight  
 SAS 공동창업자 겸 CEO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인 SAS의 공동창업자 겸 CEO다.

그가 1976년 설립한 SAS는 업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높은 매출 및 수익성을 달성했으며, 혁신과 기업문화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시하는 SAS는 미국 포천이 선정한 일하기 좋은 기업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굿나이트 CEO는 매년 총 매출의 4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을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고 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응용수학 학사 학위와 통계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72~1976년 교수로 재직했다.



**마테 리막**  
 Mate Rimac  
 리막 오토모빌리 창업자 겸 CEO

크로아티아의 고성능 전기차 기업 리막 오토모빌리의 창업자다.

리막 오토모빌리는 2011년 세계 최초의 전기 하이퍼카인 '콘셉트\_원'을 출시했으며 올해인 2021년에는 1914마력을 갖춘 완전 전기차인 'C\_Two'를 출시할 예정이다. 리막 오토모빌리에는 포르쉐와 현대차그룹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그가 회사를 설립한 것은 2011년이지만, 그 전부터도 혁신가이자 재능 있는 발명가로 잘 알려져 있었다. 2005년에는 기존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 대체품인 '전자 장갑'을 발명했고, 자동차 사각지대를 줄여주는 리어뷰 미러 장치로 국제 아이디어 발명 신제품 전시회인 IENA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크리스 엄슨**  
 Chris Urmson  
 오로라 공동창업자 및 CEO

자율주행차 산업의 개척자이자 선구자다.

로봇공학 박사과정 재학 중 카네기멜런의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에서 15년 동안 자율주행차량 개발사업을 담당했다. 이후에는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에게 발탁돼 구글의 자율주행차 개발 사업을 이끌었다. 그의 재직 시절, 구글 자율주행차 사업은 7년 만에 참여인원이 6명에서 600명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크게 성장했다. 2017년 초 우버 기술센터 창립 멤버인 드루 배그넬,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부서를 이끌었던 스티어링 앤더슨과 함께 오로라를 공동 창업했다.



연사 소개

# SPEAKER INTRODUCTION

## LEADERSHIP



**반기문**  
Ban Ki-moon  
제8대 유엔 사무총장(세계지식포럼 공동의장)

대한민국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외무부 미주국장,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등을 지낸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2004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제33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2006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됐으며, 한 차례 연임을 거쳐 2016년까지 유엔을 이끌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2018년 1월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반기문 세계시민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같은 해 4월에는 보아오포럼 이사장에 선임됐다. 2019년 4월부터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토마스 바흐**  
Thomas Bach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2013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9대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2021년 3월 10일에는 4년 임기로 연임에 성공했다.

1953년 12월 독일 뷔르츠부르크에서 태어나 변호사로도 활동했던 그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펜싱(팀 플뢰레)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981년 바덴바덴에서 열린 제11차 올림픽 콩그레스에서 선수대변인에 임명된 그는 1991년 IOC 위원으로 선출됐으며, 1996년 IOC 집행위원회 위원에 선임된 이후 10년 이상 IOC 부위원장을 지냈다. 2006년에는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DOSB)의 창립 회장으로 임명됐고, 여러 IOC 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마이클 폼페이오**  
Mike Pompeo  
제70대 미국 국무장관

제70대 미국 국무장관과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역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입성하기 전에는 캔자스주에서 4선 의원을 지냈다. 1986년 웨스트포인트의 미국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기갑부대 장교로 복무했다. 대위로 전역한 후에는 미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의회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사우스 센트럴 캔자스에서 10년 동안 2개의 제조업을 운영했다. 부인 수전(Susan)과의 사이에 아들 닉(Nick)을 두고 있다.



**마이클 샌델**  
Michael Sandel  
하버드대 교수, '공정하다는 착각' 저자

국내 누적 판매량 200만부를 돌파하며 한국 사회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스테디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하버드대 교수다.

'공정'이라는 화두를 두고 각계각층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8년 만에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을 출간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과연 우리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은 곧 정의'라는 통념에 오류는 없는지 반박해 큰 반향을 얻고 있다.



**대런 애쓰모글루**  
Daron Acemoglu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

MIT의 응용경제학 교수로,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뽑은 100명의 글로벌 사상가에 두 차례 이름을 올렸다.

키엘 인스티튜트가 주관하는 2019년 글로벌 이코노미 프라이즈의 수상자이기도 하다. 그는 40세도 되지 않은 나이에 최고의 경제학자로 주목받으며, 네머스상 경제학 부문, BBVA 재단 프런티어즈 오브 날리지 어워드, 앤드루 카네기 펠로십까지 휩쓸었다. 에스콰이어(Esquire)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등에 글을 기고해왔으며 학술 출판사인 '저널 오브 이코노믹 그로스(The Journal of Economic Growth)'의 공동편집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터키 출생으로 영국에서 교육받았다.



**존 아이켄베리**  
G. John Ikenberry  
프린스턴대 석좌교수

프린스턴대학교의 정치·국제관계학 석좌교수이며, 이 학교의 국제안보학 공동 디렉터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옥스퍼드대학 올 솔스 칼리지의 객원교수를,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옥스퍼드 벨리올 칼리지의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8권의 책을 집필했으며, 최근에는 'A World Safe for Democracy: Liberal Internationalism and the Crises of Global Order (Yale 2020)'를 출간했다. 그의 책 '승리 이후'는 2002년 미국 정치학회로부터 국제사 및 정치 분야 최고의 책으로 인정받아 슈뢰더-저비스 상(Schroeder-Jervis Award)을 수상했다.



연사 소개

# SPEAKER INTRODUCTION

WEALTH



**폴 밀그럼**  
Paul Milgrom  
스탠퍼드대 교수

로버트 윌슨과 함께 ‘경매이론의 개선과 새로운 경매방식의 발명’으로 202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스탠퍼드 인문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고가품 경매를 설계하고 입찰자를 지원하는 옥션노믹스(Auctionomics)의 회장이자 공동창업자이기도 하다. 밀그럼 교수는 경매이론에 대한 연구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그 이론은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프레스(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발간한 저서 ‘경매이론 적용(Putting Auction Theory to Work)’에 잘 나타나 있다. 밀그럼 교수는 실제 경매설계에 기여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루크 엘리스**  
Luke Ellis  
맨그룹 CEO

200년 역사의 세계 최대 대체투자 운용사인 맨그룹의 CEO다.

맨그룹은 산하 5개 계열사(맨AHL·맨Numeric·맨GLG·맨FRM·맨GPM)를 두고 있으며, 1270억달러 규모의 운용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그는 2010년 맨그룹에 합류해 투자 전반을 관리하는 사장직을 역임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는 맨FRM 상무이사 등을 맡았다. 런던 JP모건의 상무이사과 주식 파생상품 및 프랍 트레이딩 사업부의 글로벌 본부장으로도 근무했다. 영국 브리스톨대에서 수학과 경제학을 전공했다.



**카르멘 라인하트**  
Carmen Reinhart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세계은행 부총재이자 수석 이코노미스트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 출신으로 지난해 6월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선임됐다. 국제통화기금 선임 정책고문 및 부국장을 역임했으며,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부사장으로도 재직했다. 그는 블룸버그가 선정한 금융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 중 한 명이며, 포린폴리시의 세계 100대 사상가, 톰슨 로이터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목록에도 이름을 올렸다. 2018년 애덤 스미스상과 후안 카를로스 경제학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피터 오펜하이머**  
Peter Oppenheimer  
골드만삭스 최고 글로벌 에쿼티전략가

골드만삭스 유럽 매크로 리서치의 최고 글로벌 에쿼티전략가이자 대표다.

2002년 유럽 및 글로벌 전략가로 골드만삭스에 입사했으며, 2003년에는 매니징 디렉터, 2006년에는 파트너로 승진했다. 골드만삭스 입사 전에는 HSBC의 매니징 디렉터이자 최고 투자전략가로 활동했으며, 햄브로스 은행의 최고 경제전략가로 근무했다. 현재 영국 국가경제사회연구소 개발위원회 위원으로도 재직하고 있다. 그는 1985년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1급 지리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비탈릭 부테린**  
Vitalik Buterin  
이더리움 창시자

이더리움의 창시자다.

2011년 비트코인을 통해 암호화폐 기술과 블록체인을 처음 접한 후, 이 기술의 잠재력을 발견했다. 2011년 9월 비트코인 매거진(Bitcoin Magazine)을 공동 창립했다. 2년 반 동안 기존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제약과 응용 프로그램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 끝에 2013년 11월 이더리움 백서를 작성했다. 현재 이더리움 리서치 팀을 이끌며, 이더리움 프로토콜의 미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연사 소개

# SPEAKER INTRODUCTION

AEROSPACE



**파트리스 켄**  
Patrice Caine  
탈레스그룹 회장 겸 CEO

2014년 12월부터 탈레스그룹 회장이자 CEO를 맡고 있다.

프랑스 에콜폴리테크니크와 파리국립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한 뒤, 1992년 제약그룹인 프루니에에 입사해 업무 경력을 쌓았다. 2002년 탈레스그룹의 전략 부서에 합류한 후 공군 및 해군, 통신, 항공체계, 무선통신제품, 보호시스템 등에 관한 운영부서를 관리했다. 2013년 2월에는 탈레스 수석부사장, 최고운영책임자, 최고성과책임자로 임명됐다. 프랑스 국방훈장(동장), 2014년 국가 공로 기사, 2017년 명예기사 작위 수여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로이 아제베도**  
Roy Azevedo  
레이시온 인텔리전스 앤드 스페이스 사장

세계 최대 방산업체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그룹의 인텔리전스 앤드 스페이스 부문 사장이다.

전 세계 3만5700명의 직원을 이끌고 첨단 센서, 트레이닝, 사이버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아제베도 사장은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30년 넘게 임원으로 근무해 왔다. 2020년 레이시온과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UTC)의 합병 전에는 레이시온의 우주 항공 사업부 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레이시온 사우디아라비아, 레이시온 영국, 레이시온 호주의 이사회 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교 (Northeastern University)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다.



**빅토리아 콜먼**  
Victoria Coleman  
제22대 DARPA 국장·美공군 수석 사이언티스트

제22대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국장을 맡아 첨단 기술 연구개발(R&D)을 총괄했다.

현재 미합중국 공군의 수석 사이언티스트로 미국 공군과 우주군의 수석 자문역을 맡고 있다. 미국 첨단 기술의 산실로 불리는 DARPA는 유망하거나 향후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군사기술을 기획하는 미국 국방부 산하 최대 R&D 조직이다. 콜먼 박사는 여성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국장직을 수행한 후, 현재 DARPA의 정보과학기술그룹과 방위과학연구 및 마이크로시스템탐색 이사회 멤버를 맡고 있다. 야후, 노키아, 삼성, 인텔 등 민간 부문을 비롯해 정부, 학계 등 다양한 기관에서 기술과학 리더로 30년 이상 활동했다.



**브렌트 셔우드**  
Brent Sherwood  
블루오리진 ADP 부사장

우주산업 분야에서 33년의 전문 경력을 가진 우주 건축가로, 블루오리진의 고급 개발 프로그램(Advanced Development Programs) 수석 부사장이다.

ADP는 지구 궤도, 지구와 달 사이 우주, 달을 위한 우주선과 시스템을 개발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제트 추진 연구실에서 14년간 행성 임무 기획을 주도했다. 보잉에서는 17년간 인간의 행성 탐사를 위한 엔지니어링, 국제우주정거장(ISS) 모듈 제조 공학, 상업적 프로그램 및 우주과학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했다. 예일대학교와 메릴랜드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미국항공우주학회의 펠로다.



**로버트 주브린**  
Robert Zubrin  
화성학회 회장

공공 및 민간 수단으로 화성 탐사·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기관인 화성학회 (The Mars Society)의 설립자이자 회장이다.

주브린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비롯해 미군 및 민간 산업을 위한 70개 이상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0개가 넘는 미국 특허를 출원했고 우주와 에너지 기술 분야에 대한 논문을 200권 이상 발표했으며, '우주산업혁명'을 비롯한 12권의 책을 출간했다. 그는 또한 영국행성간협회 (BIS·British Interplanetary Society)의 펠로이며, 전미우주학회 (NSS·National Space Society)의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 북극에서 900마일 떨어진 캐나다의 북극 지방 무인도인 데번 섬의 화성탐사훈련소 건설과 운영을 이끌기도 했다. 워싱턴대학교에서 항공우주학 석사와 원자력 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연사 소개

# SPEAKER INTRODUCTION

CULTURE & SCIENCE



**테드 서전트**  
Ted Sargent  
토론토대 교수

2016년 6월 토론토 대학교 국제 부총장으로 임명됐다.

2016년 6월 토론토 대학교 국제 부총장으로 임명됐다. 토론토대 Edward S. Rogers Sr. 전기전자공학부 University Professor (교수 중 2%에게만 부여하는 타이틀) 지위를 가진 저명한 학자로, 캐나다 나노 기술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InVisage Technologies의 설립자 겸 최고기술책임자(CTO)이며, Xagenic의 공동 설립자다. 1995년 퀸즈대에서 공학 물리학 학사를, 1998년 토론토대에서 전기전자공학(포토닉스)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기탄잘리 라오**  
Gitanjali Rao  
2020년 타임(TIME) 선정 올해의 어린이

'미국 최고의 젊은 과학자'로 불리는 기탄잘리 라오는 납 성분을 초기에 검출하는 장치인 '테티스'를 발명해 미국 환경보호국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유전공학을 사용해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중독 조기 진단이 가능한 '에피오니'와 사이버 폭력 방지서비스 '카인들리'를 발명해 화제를 모았다. 2019년에는 포브스 선정 '30세 미만 과학자 30인', 타임 선정 '최고의 청소년 혁신가'와 최초의 '올해의 어린이'에 이름을 올렸다. 2021년에는 푸르덴셜이 선정한 미국 최고의 청소년 자원봉사자로 선정됐다.



**캠프 파워스**  
Kemp Powers  
디즈니·픽사 '소울' 극작가 겸 감독

미국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각본가, 극작가, 프로듀서이자 감독이다.

2020년 미국 버라이어티지(紙)로부터 '주목해야 할 10명의 극본가'로 선정됐다. 그가 극본을 쓴 영화 '원나이트 인 마이애미'는 2021년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됐고, 극본은 물론 공동감독으로도 참여한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소울'은 아카데미 시상식 애니메이션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디즈니와 픽사를 통틀어 첫 번째 흑인 감독이기도 한 그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속편을 차기작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는 각본가가 되기 전 17년간 기자로 일했다.



**이민진**  
Min Jin Lee  
소설 '파친코' 작가

디아스포라, 인종, 민족, 이민, 사회적 계층, 종교, 젠더,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글을 쓰는 작가이다.

그의 두 번째 소설인 '파친코(Pachinko)'는 일본으로 이민한 한국 가족에 대한 작품으로, 재일한국인을 주제로 쓰인 첫 번째 영어 소설이다. '파친코'는 내셔널 북 어워드 픽션 부문 (National Book Award for Fiction)에 결선 진출했고, 데이튼 문학평화상(Dayton Literary Peace Prize)에서 2위, 메디치상 (Medici Book Club Prize) 수상을 기록했다. 애플TV는 '파친코'를 드라마 시리즈로 제작 중이다.



**캐롤라인 서**  
Caroline Suh  
'블랙핑크 : 세상을 밝혀라' 감독

20년 경력의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넷플릭스, CNN 필름, 선댄스 채널, PBS, 에픽(Epix) 등에서 영화, 방송 및 광고 작업을 진행해 왔다. K팝 걸그룹 블랙핑크를 주제로 한 '블랙핑크: 세상을 밝혀라'는 2020년 아시아에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조회 수 1위를 기록했다. 그는 또 알렉스 기브니(Alex Gibney)의 지그소 프로덕션 (Jigsaw Productions)과 함께 사민 노스라트(Samin Nosrat)의 베스트셀러 '소금 지방 산 열'을 넷플릭스 4부작으로 제작해 큰 사랑을 받았다.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은 장편 '선거주자 (FRONTRUNNERS)'로 감독 데뷔를 했다.



MBA 소개

# MBA INTRODUCTION

지식 강국을 향한 매일경제의 꿈,  
세계 유수의 MBA와 함께합니다.



## HEC Paris

유럽 최고 경영대학원으로 평가받는 프랑스 파리의 공립 경영대학원 HEC는 유니크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유럽의 다른 학교들과는 차별화된 리더십 교육으로 이론과 현장을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포천(Fortune) 글로벌 500대 기업 CEO들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 NYU 스텐

뉴욕대 스텐 경영대학원은 미국 최고의 경영 교육 대학원이자 연구센터 중 하나로,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높은 권위를 자랑합니다. 세계 비즈니스 중심지인 뉴욕의 역동성, 에너지는 물론 뛰어난 교수진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 IESE

IESE는 스페인 나바라대학의 경영대학원으로,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과 제휴를 통해 1964년 개설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뮌헨, 뉴욕, 상파울루 등 5개 도시에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FT에서 선정한 Exclusive Education 부문 1위(2015~2018년),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최고 MBA 프로그램 2위(2017년), FT가 선정한 유럽 최고 글로벌 MBA 3위(2019년)를 차지했습니다.



## IE 경영대학원

기업가정신과 혁신에 뿌리를 둔 IE는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최첨단 시설 및 최고의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육성합니다. IE는 애자일한 접근법을 개발해 모든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20년에 걸쳐 만든 리퀴드 러닝(Liquid Learning) 플랫폼은 오프라인 형태의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유연하게 오가며 역동적인 최첨단 학습 경험을 선사합니다.



## 칭화대 경제관리학원

칭화대 MBA는 2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의 저명한 경영대학원 중 하나입니다. 최고 경영자들의 경영이론과 체계, 훌륭한 비즈니스 리더가 되기 위한 기술 및 방법은 물론 올바른 가치와 윤리 교육을 통해 전 세계를 무대로 널리 활동할 미래 리더들을 양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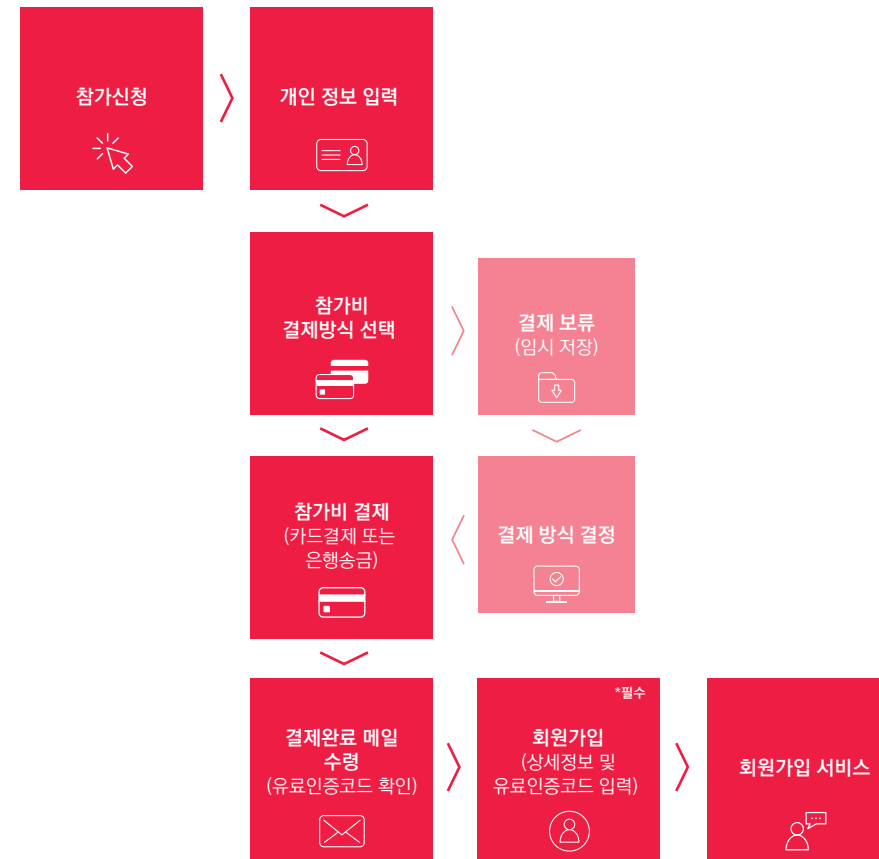
## 장강경영대학원(CKGSB)

홍콩 최대 부호인 리카싱이 설립한 리카싱재단의 후원으로 2002년 베이징에 설립된 중국 최초의 사립 경영대학원입니다. 하버드대, 펜실베이니아대, 스탠퍼드대 등 세계 유수의 경영대에서 학위를 받은 교수진과 중국 GDP의 25%를 견인하는 동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명문 MBA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주요 교수가 참가해 성공하는 중국 기업의 비결을 전수합니다.



## 등록절차 안내

참가신청: [www.wkforum.org](http://www.wkforum.org)



## 참가비 안내

구 분	조기등록 (7월 12일 ~ 8월 6일)	일반등록 (8월 9일 ~ 9월 3일)
일반	₩3,300,000	₩3,600,000
할인(50%)	대학생,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자 후손 ₩1,800,000	

## 제22회 세계지식포럼

테라 인코그니타: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

(Terra Incognita: Redesigning the Global Architecture)

기간 | 2021년 9월 14일(화) ~ 16일(목)

장소 | 장충아레나 · 신라호텔 · 서울클럽 · 국립극장 하늘극장

### 조기등록

마감일은 8월 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신청을 하셨으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반등록으로 전환되면서 할인 혜택은 자동취소됩니다.

### 일반등록

마감일은 9월 3일까지입니다.

\* 일반등록 시에도 마감일까지 입금 완료하셔야 최종 등록으로 인정됩니다.

### 회원가입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세계지식포럼의 다양한 이벤트와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계지식포럼 유료참가자의 경우, 이메일로 발송되는 유료인증코드를 입력해 회원가입을 완료하셔야 아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관리, 참가자 네트워킹, 스케줄 관리, 실시간 스트리밍 및 다시보기

### 안내사항

- 제22회 세계지식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 대학생, 장애인, 독립유공자후손 할인: 재학증명서(전업 대학생), 장애인 등록증(중증), 독립유공자유족증(5대손까지) 등의 해당 서류를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는 분에 한합니다.

- 등록 취소를 원하는 경우 9월 3일(금) 오후 6시까지 취소 신청하시면 행사종료 후 환불해 드립니다. (처리 수수료 제외)

- 참가비에 호텔 숙박요금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모든 세션에는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 자세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지식포럼 등록사무국

서울시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4층

Tel : 02-2000-2620~3

E-mail : [wkf\\_reg@mk.co.kr](mailto:wkf_reg@mk.co.kr)





매경미디어그룹 회사소개

# MAEKYUNG MEDIA GROUP

매일경제는  
초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을 선도하며 지식강국의  
내일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초일류 국가의 꿈을  
실현합니다.

## 매일경제

### 매일경제 Maeil Business Newspaper

월간 현대경영, 엠브레인 등의 조사에 의하면  
매일경제신문은 '전국 직장 구독률 1위 신문'  
'서울 도심 구독률 1위 신문' '14년 연속으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뽑은 명품신문'  
등 오피니언 리더 및 구매력 높은  
고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ABC협회로부터 발행부수  
70만7,749부(2018년분)를 공인받은  
명실상부한 1등 신문입니다.  
매경미디어그룹은 기업들의 성공적인 광고·  
홍보 매체로서도 가장 효율적인 신문입니다.  
매경미디어그룹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민일보, 파이낸셜타임스, 상하이TV 등  
글로벌 미디어그룹 및 방송 제작사들과의  
콘텐츠 교류, 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  
지분 투자 등의 업무를 제휴해  
매경미디어그룹의 특징점을 강화할 수 있는  
최상의 글로벌 미디어 파트너십을  
구성했습니다.

## MBN

### MBN Maeil Broadcasting Network

MBN은 1995년 국내 최초의 보도  
전문채널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1일, 종합편성채널로  
새롭게 출발한 MBN은 17년간 보도채널의  
노하우와 함께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또 방송계  
인포테인먼트 장르 열풍을 불러일으킨 재미와  
정보·유익함을 갖춘 예능, 따뜻함과 진정성을  
담은 착한 교양과 감동이 있는 드라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약 덕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채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힐링 예능' '착한 교양' '스토리  
교양' '리얼 관찰' 등 새로운 포맷의 MBN식  
장르 개발이 그 원동력이 되어 새로운 MBN  
시청자층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MBN은  
차별화된 편성 전략과 문화와 세대를  
뛰어넘는 명품 콘텐츠로 끊임없이 시청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청자와 공감할  
것입니다.

등록부터 포럼의 주요 정보까지  
세계지식포럼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세계지식포럼 홈페이지**  
www.wkforum.org



세계지식포럼의 다채로운  
영상들을 만나보세요.  
**세계지식포럼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wkforum



세계지식포럼 최신 소식을  
확인하고 실시간 세션을 시청하세요.  
**세계지식포럼  
모바일 앱 다운로드**

